

2025 12
통권 308호

티움

안동교구 사람 사는 이야기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contents

- 01 마음이 머무는 자리 1p
- 02 소공동체 기도 2p
- 03 2025년 교구 실천사항 3p
- 04 반모임 길잡이 4p
- 05 교구 신앙의 역사 이야기 6p
- 06 청년 - 미래세대에게 듣는다. 8p
- 07 건강한, 신앙생활 10p
- 08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 - 만남이라는 신비 12p
- 09 공소 탐방 - **신상공소** 14p
- 10 찬미받으소서 퀴즈 16p
- 11 우리 생명 이야기 18p
- 12 소개합니다 - 교구역사관 20p
- 13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22p
- 14 책속의 향기 24p
- 15 부르심
- 16 사제의 단상 26p
- 17 신학교에서 온 편지 28p
- 18 그분과 함께 30p
- 19 알림 32p



'티움'은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과 사랑의 싹을 틔우고
열매맺도록 도움을 주는
가까운 벗이 되고자 합니다.

퍼낸곳 천주교안동교구사무국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전화 054.858.3114
홈페이지 <http://www.acatholic.or.kr>
표지사진: 김현택 제준 이나시오
(정의평화 위원회, 목성동 본당)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어 있으십시오.

(콜로새서 4장 2절)

성경 말씀은 길전 마티아 본당 신봉현 마리아(신양대학10기 졸업) 자필로 써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오면서 매 순간 순간마다 삶의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 지쳐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힘을 청하곤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소공동체 기도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당신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시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어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눈물을 나누셨던 주님.

저희도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신앙과 고통과 기도를 나누면서

참된 형제애를 느끼고 성령 안에 일치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생명이 저희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서로 형제된 기쁨으로

친교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실천사항 1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교구

- 교구장 농민회 분회 방문
-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권유
- 생명 농산물 이용에 대한 지속적 교육
- 생명농업 마중물 가농소 입식운동 지원

본당

- 농민을 위한 기도
- 본당과 공소(분회)의 지속적인 자매 결연
- 본당 행사 때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 공소나 지역에서 생산한 나눔 장터, 텃밭 가꾸기

가정

- 농민을 위한 기도
- ‘우리 농산물 < 지역 농산물 < 생명 농산물’을 이용한 밥상
- 밥상 손수 차리기(배달 음식 줄이기)
-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육식 줄이기

농민

- 탄소 중립을 위한 농사(자급 퇴비, 비닐 사용 줄이기)
- 자연 환경과 농촌 지키기 실천
(제초제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 실천사항 2

청년을 위한 청(聽)년
(A year of Listening for youth)

- 안동교구 청년을 위한 기도
- 각 가정, 본당의 청년 발굴
- 지구 청년 담당 사제 선정
- 지구 차원의 청년 모임 활성화
- 청년과 사제, 수도자와 함께 하는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나누기

「찬미받으소서」가 공동의 집을 지켜야 할 환경 보호의 대전제를 다뤘다면,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기후 위기의 위험성과 인류 위기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이를 읽고 나눔으로서 생태적 회심을 이루도록 합시다.

1단계 (기도)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소공동체의 기도(2쪽)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2단계 (독서)

“어느 분이 말씀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읽은 후)
“다른 분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묵상)

잠시 침묵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분)

4단계 (선포)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두 번씩 말합니다.

5단계 (나눔)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말씀’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눕니다.

6단계 (활동과 실천)

1.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2. 본당 소식 및 기타사항

7단계 (기도)

“각자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기후 위기에 관한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

제2장

증대되는 기술 지배 패러다임

21.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진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 패러다임의 새로운 진전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 지능과 최신 기술 발전은 인간에게 한계가 없다는 발상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 발상은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이 기술의 도움으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기술 지배 패러다임은 괴물처럼 자기 자신을 먹어 양식으로 삼습니다.

22.

리튬, 규소와 같이 기술에 필요한 천연자원들은 당연히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종의 강박의 바탕이 되는 이념입니다. 곧 온갖 상상을 뛰어넘어 인간의 힘을 키우려 하고, 이를 위하여 인간이 아닌 실재는 그저 인간의 힘을 키우는 데에 이용되는 자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중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돌보아야 할 선물이 아니라 인간 정신과 능력이 지닌 온갖 망상의 노예이자 희생물이 됩니다.

“초대 교구장 두봉 주교 취임사”

신대원 요셉 신부 (안동교회사연구소장)

1969년 7월 25일 성 야고보 사도 축일에 두봉 신부는 샌 주교의 임명 수락과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주례 주교인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과 모든 주교의 안수로 서품된 두봉 주교는 정식으로 안동교구장 좌(座)에 착좌하여 소속 신부들의 순명 서약을 받았다. 이어서 참석한 모든 주교와 신부들이 새로 서품된 두봉 주교의 주례로 공동미사를 집전하였다.

이날 행사는 주교 서품 및 소속 신부들의 순명 서약, 교구장 취임 미사로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경축식이 있었다. 경축식은 먼저 개식사와 국민의례, 윤대영 클레멘스의 진행으로 교구설정 경과보고 및 두봉 주교의 약력 소개가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주교 서품을 주례한 김수환 추기경의 〈경축사〉가 있었으며, 준비 위원장인 류한상 베드로의 〈환영사〉와 꽃다발과 예물 증정, 국회의장 이효상 아퀴로, 프랑스 주한대사, 경북도지사, 안동시장 등의 순서로 〈경축사〉가 있었다. 아울러 초대 안동교구장 주교로 서품된 두봉 주교의 〈답사〉와 축전 낭독, 축하, 공지 사항, 폐회사로 2부 경축 행사가 마무리하였다.

당시 국회의장 이효상의 익살스러운 〈경축사〉는 운집한 군중으로 하여금 더위를 잊게 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두봉 주교의 〈답사〉는 “외국 사람으로서 대단히 훌륭하였다.”라고 모두가 감탄해 마지않았다. 그리고 이날 축하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략 5천여 명이었는데, 타 교구에서 온 내빈으로는 김수환 추기경, 교황대사관 참사관(De Luka Dominico)몬시뇰, 대구교구 서정길 대주교, 대전교구 황민성 주교, 부산교구 최재선 주교, 수원교구 윤공희 주

교,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 광주교구 현 헨리코 주교, 평양교구장 안 제오르지오 몬시뇰,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의 오토하스 아빠스, 청주교구 주교서리 주미카엘 신부, 인천교구 진 야고보 신부, 대구교구 부주교 이명우 신부, 서울 서강대학장 데일리 신부와 각 교구의 많은 사제와 수도회 장상들이 참석하였다.

일반인 참석자는 이효상 국회의장, 프랑스 대사 부처 및 문화 담당 보좌관, 경북 도지사, 교육감, 경찰국장, 영남대학 총장 이태재 교수와 이승희 안동시장 및 각급 기관장, 유지(有志) 등 70여 명이었다.

두봉 주교는 <취임사>는 “진복팔단(眞福八端, 마태5,1-12)”을 주제로 이루어졌는데, 두봉 주교는 서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도 역사가 놓여있고, 우리 앞에도 역사의 궤도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 실로 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2천 년의 기나긴 역사가 흘렀지만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라고 설교하였다.

이어서 계속하여 “진복팔단”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진복팔단이야말로 이 세상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거룩한 교훈(聖訓)이 아닐 수 없습니다.....<중략>.....오늘은 안동교구를 설정하는 날입니다. 즉 오늘 상주, 문경, 의성, 예천, 안동, 영주, 청송, 영양, 봉화, 영덕, 울진 등 경북 11개 시.군의 성직자와 신자들이 한데 모여서 교회 안에 새 교구를 만드는 것입니다.....<중략>.....새 교구 성직자. 신자 여러분! 본인도 힘껏 일해 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서로가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가 진복팔단의 교훈대로 다짐하는 그것입니다.”(두봉 주교 강론 중)

다음 호에서는 두봉 주교의 약력과 희망(포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의성성당 청년회 창단 이야기

의성지구 청년회장
의성 본당 박영곤 베드로

찬미 예수님,

우선 교구 소식지 “턱옴”을 통해 교구 신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의성지구 청년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의성 본당 박영곤 베드로입니다.

올해 2월, 의성 본당 주임 신부님이신 김한모 바오로 신부님과 사목회 임원분들께서 오랫동안 청년회와 관련해 고민을 해오시던 중, 다가오는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 본당청년회를 창단해서 “청년들이 교회로 모여 함께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해 보자”라는 감사한 말씀을 전해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의성에 거주하거나 의성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0~30대 청년신자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제안하였고, 감사하고 고맙게도 20~40대의 선·후배 청년 신자분들이 함께 하기로 하여, 2025년 4월에 23명의 청년들이 ‘의성성당 청년회’를 창단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느님과의 친밀감을 키워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룬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매월 월례회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부활절에는 의성의 작은 영화관을 대여해 본당 신자분들을 위해 특별 영화 상영을 했으며, 지난 11월까지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의성문화원에 수업을 개설하여 역량강화 수업(영어, 미술 외)을 진행하는 등 본당 안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이웃 안계 본당 청년들과 함께 의성지구 청년회를 창단(담당 양호준 텔피노 신부님)하고, 안동교구 청년회 행사와 회의에 참여하여 조금씩 안동교구 안에서 ‘의성지구 청년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렵고도 힘든 일인데, 서로 바쁜 가운데 조금씩 배려하며 희생하고 믿고 함께 하는 의성지구 청년회 회원분들과 또한 청년회 창단과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의성 본당 주임 신부님, 지구 담당 신부님, 본당 사목회 임원분들, 그리고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자분들께 정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의성성당 청년회와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聽)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향(乳香)과 몰약(沒藥)

박인수 베네딕도 한의사
용상동 본당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다. 그중에 나이 많은 현자인 멜키오르(Melchior)는 예수님께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발타사르(Balthasar)는 예수님이 겪을 수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을, 가장 젊은 카스파르(Caspar)는 예수님이 신성한 사제의 권능을 가졌음을 상징하는 유향을 바쳤다. 그들이 선물한 유향과 몰약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 당시 중동과 아프리카의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나는 귀한 약재로 황금만큼의 값어치를 지녔는데 유향과 몰약은 둘 다 감람과(Burseraceae) 나무에서 추출한다. 유향은 보스웰리아(Boswellia trees) 수액이고 몰약은 코미포라(Commiphora) 나무의 수액으로 나무에 상처를 입히면 상처를 치유하느라 끈적끈적한 액체를 분비하는 수지병(gummosis)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채취한 것이 레진이고 약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유향나무(Boswellia)는 에디오피아와 아라비아반도에서 자생하며 인도와 북아프리카의 고산지대에서도 자란다. 프랑킨센스 또는 올리바넘이라고 하는데 주로 속명인 ‘보스웰리아’라고도 불린다. 예로부터 진통작용과 항염효과가 뛰어나 관절염 치료제로 쓰였고 타박상과 근육통을 완화시키며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상처 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데 그것을 태워서 나오는 향은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을 주기에 종교적인 행사와 명상에 주로 사용된다.

몰약나무(Commiphora)는 척박한 중동지역에서 자생하며 거기서 얻은 수지를 미르(myrrh)라 부른다. 몰약의 어원은 아랍어로 ‘매우 쓰다’는 뜻인데 피를 잘 돌게 하며 통증을 줄여주고, 종기를 치료하며 피부에 새살을 돋게 한다. 불붙은 작은 숯(charcoal)에 올려 태워 향으로 쓰는데 정교회에서는 성찬 예배 때마다 이것으로 향을 치기에 정교회 건물에 들어가면 느낄 수 있는 냄새가 바로 몰약 향이다. 특히 몰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고통을 당할 때 그걸 안타깝게 여긴 로마 병사가 통증을 잊도록 마취제 용도로 몰약을 넣은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고통을 달게 받으시려고 거절하였다. 또한 몰약은 시신을 염습하는 방부제로 사용하는데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제조할 때 이것을 썼는데 오늘날에도 몰약은 아로마테라피에서 주된 에센셜 오일로 취급되며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구강 청결과 호흡기 질환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유향은 벌레나 기생충도 쫓을 수 있어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데 거기다 몰약을 섞어서 향을 피우면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심신이 안정되고 긴장을 완화시켜준다. 그래서 유럽 대성당의 미사에 향을 피워 연기를 퍼뜨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유향과 몰약의 향이라고 알면 된다.



요한 복음사가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느 기적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필요함을 밝힌다. 라자로의 부활을 위해서는 적어도 가족인 마르타와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도 부활의 삶에 참여하고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믿음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믿음 없이 부활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부활’에 대한 믿음은 지금부터 부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만남이라는 신비, 권혁주 요한 크리스토톰 주교 지음

남성동 본당 신상공소

Q : 신앙 생활을 하며 재미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우 1: 저는 성당에 1975년쯤부터 다녔는데 우리 공소에 그림을 매우 잘 그리시는 신부님이 계셨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신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신부님이 계실 때 아직 성당에 나오지 않았을 때였지만 옛날에는 신자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보통 40명 이상이 나오고 했었는데 학생들까지 합하면 60명도 더 넘은 때도 있었지요. 그 당시만 해도 낙동면에서 우리 공소 신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하니 신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니 금방 줄어들더군요.

교우 2: 저는 1988년에 여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비하면 신자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다른 공소에는 귀농 귀촌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공소에는 그런 분들도 없으시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곳 토박이들입니다.

교우 3: 저도 이곳에서 1983년에 세례받았는데 그때 애들도 많았고 어른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었지요. 학사님이 오셔서 교리를 가르쳐주셨는데 정말 오래전 일입니다. 암튼 그때 세례받은 아이들은 커서 객지로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이들은 없다 보니 신자 수가 많이 줄었지요. 그래도 옛날을 생각하면 공소 신자가 한 사람만 남는다 해도 공소는 꼭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공소에서 생활하며 좋은 점이나 자랑거리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우 4: 1960년도에 몇몇 사람이 모여 공소를 짓기로 결정을 하고 오로지 신자들의 힘만으로 1962년에 공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밥도 못 먹고 사는 시절이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소를 짓기 시작한 때부터 건물을 완성할 때까지 공소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직접



강가에 가서 벽돌을 만들고 흙도 저서 나르고 벽돌 한 개 한 개를 직접 쌓아 올려서 만든 건물입니다. 신자 중에 한 분이 집을 짓는 기술이 있어서 그분을 중심으로 서로 힘을 합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 건물이 그때 지은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우 5: 공소를 짓고 나서 신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당시 성당에 나오면 외국에서 원조해 주는 밀가루 같은 생필품을 나누어 주었지요. 그때 우리 공소 신자 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밀가루 때문에 나왔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성당에 나오면 사람 사는 맛이 났고 신앙생활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오신 부통 신부님이 오셔서 우리 성당 벽의 나무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어떤 신자들은 그림이 너무 무서워서 열른 못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그림이라며 이곳으로 찾아오는 교수님들도 있고 합니다. 우리 공소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교우 6: 우리 공소는 많을 때는 90명 넘게도 세례를 받은 적도 있는 큰 공소였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젊은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고 우리 공소도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만 매주 본당에서 레지오 팀이 공소에 와서 미사를 함께 드리고 있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공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본당 신자들이 매주 공소 미사에 함께 참여하는 데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소는 늘 활기차고 다른 공소에 비해 전례도 잘 되는 것 같아 좋습니다. 비록 신자 수가 많지 않지만 남아 있는 신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우리 공소도 지금보다 더 나은 공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찬미받으소서 211항-221항

- 211항 작은 ()적 행동으로 피조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고결한 일입니다.
- 212항 ()으로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고 이 세상이 살 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 213항 ()은 죽음의 문화라고 불리는 것에 반대하여 생명 문화의 중심을 이룹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부탁하고,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마음을 나타내어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 214항 환경훼손을 막으려면 권력 기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 절제를 하고 서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 215항 아름다운 것을 ()하며 음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멋대로 사용하고 착취할 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사실은 놀라지 않습니다.
- 216항 우리 ()인 이들이 하느님께서 교회에 주신 보화를 언제나 받아들이며 중진시켜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 217항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만남의 결실이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18항 화해를 이루려면 우리의 삶을 ()하며 우리의 행위와 방관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피조물에 해를 끼쳐 왔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 219항 사회 문제들은 단순히 () 선행의 총합이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망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220항 회개는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커다란 () 친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랑에 넘치는 인식을 포함합니다.
- 221항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회개의 이 차원을 분명히 드러내어, 우리가 받은 은총의 힘과 ()이 다른 피조물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맺는 관계에서도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1. 교황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으면서 비어 있는 괄호를 채웁니다.
2. 오른쪽 퍼즐 속에 숨어있는 위의 단어들을 찾습니다.
3. 16-17쪽을 사진 찍어서, 사목국으로 보냅니다.
4.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12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사목국 전화 054-858-3114, 010-9853-3066

이메일 sa3119@nate.com

보내실 때 정답, 성명, 세례명, 본당명,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세요

척	스	상	네	보	미	카	에
그	리	스	도	편	성	소	라
독	하	마	로	적	행	피	개
키	천	가	일	낙	동	아	인
레	정	생	파	상	의	모	적
발	황	감	태	솔	실	스	바
송	성	화	사	적	천	크	경
눈	찰	라	면	빔	습	빛	탄

10월 당첨자

정정순 보나(옥산 본당)

김희옥 크리스티나(계림동 본당)

지속 가능한 지구의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한 길 28 - 핵발전소 없는 세상 만들기 3 -

김시영 베드로 신부
함창 본당 주임,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지금 파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했던 2024년 11월 바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였지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국가들을 지원하는 새기후재원만 연간 약 1827조원으로 합의되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도리어 미국을 필두로 총 31개국이 2050년까지 핵발전소를 3배 이상 늘리겠다는 선언만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전기차의 전력 수요 폭증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각 나라가 해결방법으로 핵발전소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러나 핵발전소는 1기당 10~12조원이 드는 대규모 건설비와 10년이 넘는 공사 기간, 출력 조절의 경직성, 송전망 문제, 핵폐기물 문제 등 구조적이면서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발전에 있어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같은 핵 참사 재발 위험은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치명적 약점입니다. 따라서 핵사고는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 또는 인적·기계적 오류만이 아니라 태업, 테러 또는 군사적 공격 등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1.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1986년 4월 26일 새벽, 구소련 연방인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 있던 당시 유럽의 최대 핵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구조적 결함과 무리한 실험 그리고 관리 부실로 인해 역사상 최악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겁니다. 현재도 200kg이 넘는 양의 우라늄이 엄청난 방사성 물질을 뿜으며 타

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소방관들이었는데 이 작업에 참여했던 모든 소방관은 2주 이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사능 수치가 가장 높은 지붕에서 복구 작업을 한 이들과 삽이나 손으로 작업한 이들 또한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낮은 곳이나 벽 등으로 가려진 곳에서 복구 작업을 한 이들은 사망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39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소련당국은 주민들에게 사고 사실을 숨겼고, 그 결과 수많은 이들이 피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쓰러져 죽은 사람들도 많았고, 방사선 피폭이 있는지 모르고 밖에서 놀거나 축제에 동원되었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방사능 피폭 후 많은 이들이 두통, 다리 저림, 관절 저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한 이들은 급성혈액암까지 걸렸습니다. 특히 사고 핵발전소 30km 반경 이내 있었던 아이들은 갑상선암에 걸리거나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숨졌습니다. 그래서 피폭당한 이들 중에 암, 혈액병 등으로 사망한 이들이 100만 명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이웃 나라 벨라루스도 직접적인 피해를 당함

체르노빌 핵사고는 우크라이나 내 핵물질을 취급하는 특별 산업 지역(반경 10km)과 생태계 보호구역(반경 30km)은 물론이고 13km 떨어진 이웃 나라인 벨라루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전 국토의 23%가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었습니다. 세습 농도는 기준치의 20배 이상 높았고, 그 결과 그 땅은 폐허가 되었고 현재 방사능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에서 깨끗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연구 또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노인들은 다시 돌아와 살기도 하지만 주민 34만명이 고향을 떠났고, 485개 마을이 폐쇄 되었으며, 161개 마을은 사람들이 전혀 살지 못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벨라루스 제2의 도시인 고멜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방사능에 오염된 마을과 산림지역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또한 수백만 명에 달하는 후손들은 각종 방사능 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에서 방출된 방사능의 400 배에 해당하며, 같은 7등급 핵사고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누출된 방사능의 10배를 뿜어내었기 때문에 벨라루스의 토양과 수질 그리고 대기까지 오염시켰던 겁니다.

농은 홍유한 선생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1770년 경, 가로 25.6cm * 세로 27cm)

농은 홍유한(1726~1785) 선생은 1757년경, 이 땅에 천주교가 전래되기도 전에 천주교 서적을 접하고 신앙을 받아들여 7극을 중심으로 영주 구구리에서 직접 수계생활을 한 우리 신앙의 선조이다. 이 편지는 선생의 아들 낙질(樂質)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집의 아이 (낙질)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들에는 “해가 바뀌어 적조했는데 그리운 나머지 편지를 받고는 네가 자고 먹는 것이 대략 편안함을 알았으니 다행이로구나.” 하며 안위를 걱정함과, “학문이 넉넉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하게 되고 비천한 사람이 존귀하게 되며 가성이 실추하지 않고 부모가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니, 네게 있어서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인가? 힘쓰고 힘써서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지극히 옳을 것이다.” 며 간곡히 아들을 타이르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안동교구청에서 보관중이다.

기쁘고 떳떳하게

김헌택 제준 이냐시오
목성동 본당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 주교좌 목성동 성당의 김헌택 제준 이냐시오입니다.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부위원장(평신도 위원 대표)으로 활동하고 있고,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 마리스타학교 교감, 열린 사회를 위한 안동 시민연대 상임 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례

1984년 3월 안동에 교사로 부임 받아 오면서 오일창 모이세 선생님을 만나 안동 문화 연구회 활동과 안동 YMCA 교사회, 전교조의 전신인 안동 교사 협의회 창립 및 각 시, 군 협의회 창립 등에 동분서주하였습니다. 1989년에 많은 전교조 교사들이 해직되어 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라 신자도 아니면서 성당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아이들을 성심 유치원에 보내면서 93년도에 아이들과 먼저 세례를 받고 3년 뒤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의평화 위원회

세례를 받아 오선생님과 함께 교구 정의평화 위원회(이하 정평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분이 정평위가 정의구현사제단 산하 단체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시다만 정평위는 로마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의 권고로 1970년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전국위원회에 소속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및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해야 할 일

정평위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근거로 성경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10,29-37),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오 22,39

마르코12,31:루카10,27),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25,40)에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 교구의 사명 선언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복음적·도덕적 지침인 사회 교리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세례받고 그해 9월부터 수녀님의 요청으로 야간학교에서 영어를 맡아 가르쳤습니다. 야간학교는 밤에만 운영하니 낮 동안 그 공간을 활용하여 ‘훈민정음학교’라는 문해 학교의 교감을 맡아 활동하였지요. 99년에 천주교 정의구현 연합과 연대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순례를 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경북 북부지역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연대’를 구성하였습니다. 연대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YMCA와 가톨릭 농민회 등 13개의 단체를 모아 2000년에 ‘열린 사회를 위한 안동 시민연대’를 창립하였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른 교육과정을 통해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2004년에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하고 준비해서 2005년에 ‘나섬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사회 교리 준비는 내년 부활절 이후에 사회 교리 수업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타교구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할 일은 너무 많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어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바람

정의와 평화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데 인간들의 탐욕으로 깨어지게 되지요. 사회 소외계층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대를 통해 공공선을 추구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보수와 진보라는 편파적인 정치적 시선으로 보지 않고 신앙인의 눈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당연한 몫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정의평화구현을 위한 활동이 교구 신자들과 지역 시민들과 함께 ‘기쁘고 떼떽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희망합니다!

■ 이 코너에서는 안동교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은인이나 봉사자들을 소개합니다.

교회의 탄생

송봉모 지음 | 368쪽 | 22,000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2,37)

신앙생활의 기본 지침이며 개인과 공동체 의 새신 길잡이인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다양한 측면에서 흥미롭게 풀어낸 책으로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을 담은 첫번째 “사도행전 산책” 시리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토대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닌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 새롭게 거듭 태어나도록 초대하며 초심으로 돌아가게 한다.



바오로딸은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녀들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전화 054-859-6040 / 목성동 주교좌 성당 입구

부르심



하느님의 섭리(攝理)와 회심(回心)

남상우 토마스 모어 신부
가톨릭상지대학교 교목처장



안동은 간고등어나 찜닭, 소주나 식혜로도 유명하지만, 그중 제일은 하회(河回)마을이 아닐까? 그래서 먼 곳에서 손님이 오시면 더우나 추우나, 마을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부용대에 오른다. 유유히 돌아나가는 강을 배경으로 논밭과 솔숲, 초가와 기와집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촌락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레 근심 걱정을 놓게 된다. ‘산·물·바람 명(명상) 하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다. 굳건하게 자리 잡은 산과 유연하게 흐르는 물, 심 없이 부는 바람과 청담(淸淡)¹⁾을 하다 보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의 기도가 절로 흘러나온다. 작은 일에도 아용다용 살아왔던 자신을 대면하는 짧은 양심성찰은 덤이다.

손님들이 사진을 찍고 절경을 감상하는 동안 나는 한 걸음 떨어져 ‘강이 돌아가는 마을, 하회촌 河回村’을 보며 나의 회심(回心)의 순간들을 되돌아본다. ‘회심’이란 마음을 돌린다는 뜻이다. 종교적 회심의 의미로는 바른길로 돌아섬, 그리스도교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한 14, 6)이신 하느님께 ‘몸과 마음’이 전인적으로 돌아섬을 뜻한다. 그래서 사순·대림시기에 판공성사를 앞두고 양심성찰을 할 때면 ‘되돌아온 작은 아들의 비유’(루가 15, 11-32)가 자주 소개된다. 왜냐하면 ‘성찰-통회-결심-고백-용서’라는 회해성사의 다섯 단계가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천주섭리회 수녀님들과 연피정을 함께 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요한 20,18)>란 주제로 『천주섭리회 회헌』과 『찬미받으소서』 회칙의 ‘생태적 회심’을 성찰하는 여정이었다. 피정강의를 준비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섭리기도 I」이었다. 이 기도에는 수녀회의 삶과 영성이 잘 응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 회심’의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섭리를 드높이며 그 모든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저희가 받은 온갖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들로 말미암아

찬미와 감사를 드려

*주님의 섭리를 현양하리이다. (이하 *)

저희의 인간적 한계에 부딪칠 때마다

주님께 신뢰하여 고통과 좌절을 겪을 때마다 *

주님께서 의중에 두신 신묘한 이치에 겸손되이 승복함으로써 *

많은 성인들의 회심 과정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고통과 좌절’에 빠져있을 때 하느님을 찾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하느님과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고 드리는 ‘감사기도’가 반복된다. ‘감사, 감사, 감사!’ 그렇게 감사가 차고 넘치면서 ‘찬미기도’가 나오게 된다.

나의 인간적인 ‘한계’를 깨닫게 되는 순간, 마침내 주님께 ‘신뢰’하게 된다. 그분의 ‘신묘한 이치’와 섭리에 ‘겸손되이 승복’하게 된다. 이제는 뜯어말려도 ‘주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드높이며 그 모든 뜻에 순명’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회심의 여정’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 가는 ‘자유로운 순례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올해의 마침표를 찍으며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1)청담(淸談)은 고대 중국에서 유행한 철학 사상의 일종으로 ‘세속을 떠난 맑은 담화’라는 의미이며, 소위 죽림칠현이 이 청담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영원한 이웃

김기섭 요셉
실습의 해, 구담 본당

찬미 예수님!

어느새 벌써 한 해의 끝인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바를 이루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프락티쿰’이라는 실습의 해를 보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한 해를 짧게 요약하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제가 속한 본당을 떠나 다른 본당으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간다는게 걱정도 되었지만,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반겨주셔서 기쁘게 생활했습니다. 덕분에 그곳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행사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둘째, 국내를 넘어 해외로 갔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안나스쿨’이라는 곳



캄보디아 안나스쿨 파견(2025.4-6)

에 약 2개월간 머물렀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곳에서도 많은 이웃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마을 공부방을 다니면서 현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외지인인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따뜻하게 안아 주었습니다. 비록 경제 여건이 우리나라보다 좋진 않았지만, 남녀노소 상관없이 제가 만나는 모두가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캄

보디아에서 기쁜 생활을 뒤로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 여름 캠프와 신앙학교를 마치고, 저는 다음 파견지로 떠났습니다.

세 번째 파견지는 9월부터 12월까지 강릉의 갈바리 의원입니다. 이곳은 호스피스 전문 병원으로 말기 암으로 고통받으며 임종을 앞둔 분들이 남은 삶을 편안히 지내다 갈 수 있도록 보살펴드리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수녀님들, 의사, 간호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임종을 앞둔 분들과 보호자분들뿐 아니라, 가정에 계신 분들도 찾아뵙면서 말뱃을 하고, 기도도 하며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임종을 맞으신 이후에도 모든 분들이 하느님 곁으로 찾아가기를 기도드리고 가족을 떠나보내신 유가족분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강릉 갈바리의원 파견
(2025.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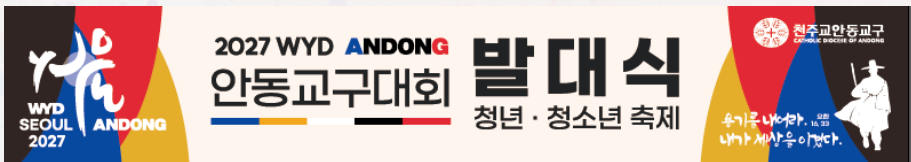
이 세 가지는 모두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만난 이들도 모두 달랐습니다. 타 본당에서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며, 그분들의 삶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캄보디아에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아기들, 아이들을 만나며 그들의 탄생과 함께 역동하는 생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인 갈바리 의원에서는 삶을 마무리하는 죽음에 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이번 실습을 통해 탄생부터 사람의 인생을 지나 마지막 죽음까지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과정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언제나 함께 계시며 이끌어주시고 함께 기뻐해주시고 슬퍼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살아감에 있어서 걱정이 앞서고 두려울지라도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도드리면 우리와 함께 하는 하느님께선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주실 것입니다.

많이 추워진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마지막 남은 올 한 해 잘 정리하시며 내년에도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동 교구대회 발대식

10월 12일(주일) 안동 탈춤 공연장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동 교구대회 발대식과 청소년 축제가 있었습니다. 예비신학생들은 발대식과 발대미사에서 전례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성경책을 봉헌하고, 제대 옆에서 복사를 서고, 보편지향기도를 바치는 등 미사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비신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을 닮고자 했던 ‘성 카를로 아퀴티스’가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비신학생들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 주세요.





알 림

1. 2026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과 합격자

손동일 T. 아퀴나스(점촌동), 김태영 사도 요한(개운동)

* 축하드리며, 합격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2. 예비신학생 종강미사

일 자 : 12월 14일(주일)

장 소 : 교구청

3. 2026년 예비신학생 등록 신청

대 상 : 사제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방 법 : 등록 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공문을 통해 안내 확인.

※ 등록카드 다운 방법

안동교구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

- 안동교구예비신학생등록카드

4. 성소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안동교구 각 본당 매월 마지막 주일 교중 미사

매주 수요일 교구청 미사

성소후원 회비 납부 현황

2025년 10월 1일 ~ 10월 31일까지 납부하신 내용입니다.

정성껏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내 본당		권양일	10,000	조기섭	10,000	정옥남	10,000
가 은	765,000	김건화	10,000	조원준	10,000	최은정	10,000
계 림 동	485,000	김경란	10,000	최경희	40,000	현희성	10,000
모 전 동	955,000	김경란	10,000	최영옥	10,000	이영섭	20,000
목 성 동	1,599,000	김경림	5,000	탁인자	30,000	나양수	30,000
문 경	295,000	김경수	50,000	황상호	30,000		
송 현 동	1,000,000	김근희	5,000			가르멜 여자 수도원	
안 계	345,000	김길자	50,000	월 모 임 편			300,000
울 진	1,055,000	김정란	60,000	강면식	20,000		
진 보	1,395,000	김정은	20,000	강창수	300,000	성 분 도 치 과	
하 망 동	1,837,000	김현정	20,000	설영숙	10,000		100,000
후 포	652,000	김혜경	10,000	심재임	20,000		
		박승철	10,000	윤동진	20,000	안 동 신 협	
		박종대	10,000	이순연	20,000		100,000
교구 내 기타		변진의	10,000	최금주	50,000		
김정현 신부	10,000	서효식	30,000			은총의 거울 Pr	
백동수 신부	10,000	송은옥	10,000	이 길 선 편			25,000
서동호 신부	20,000	신옥선	10,000	강명희	5,000		
안영배 신부	10,000	신용찬	50,000	김중향	5,000	정의의 거울 Pr	
윤성규 신부	20,000	안명숙	20,000	변우경	5,000		20,000
정양모 신부	100,000	안안택	10,000	전정희	5,000		
정철환 신부	10,000	위은숙	10,000	황재해	5,000	향 주 삼 덕 회	
박경순	20,000	이귀호	10,000	최인숙	10,000		20,000
박보라	10,000	이임영	30,000	권순옥	10,000		
박정렬	10,000	이정숙	20,000	김지은	10,000		
서영림	10,000	이호숙	10,000	박영신	10,000		
신동섭	10,000	장준영	10,000	백형숙	10,000		
이가엘	10,000	장희익	20,000	송 경	10,000		
이정두	10,000	정경자	20,000	신미란	10,000		
		정재식	50,000	양수모	10,000		
타교구 개인		정태진	20,000	이길선	10,000		
강윤순	5,000						

입금계좌안내 - 예금주 : 천주교안동교구 * 입금자명을 꼭 적어주세요!!

(농협) 733-01-254416 (기업) 160-000175-04-194

(신협) 09035-12-001948 (신한) 140-005-570052

(우체국) 703439-01-004207 (지로) 7519989

*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054-858-3114-5번으로 연락해주세요.

